

24년 10월 목회일정

6일(주일)	정기제직회
13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0일(주일)	연합야외예배(김해개척장로교회)
27일(주일)	종교개혁기념일 특강(양주동 목사)
10.20~11.16	공식심방(재정심방포함)
8일(화)	부산중부노회 장로회연합회(동래교회당)
15일(화)	부산중부노회 정기노회(거제교회당)
29일(화)	고재수교수 기념신학강좌(고려신학대학원)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문화주일 / 오늘 오후예배 후 [성경으로 영화읽기-소울 서퍼]
가 있습니다. 사회: 김영민 장로, 기도: 고충석 장로
3. 분기특별헌금 / 예배 중에 3/4분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4.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 : 김성재 이은수 학생
5. 정기제직회 / 다음주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
6. 목회자휴양주일 / 오늘은 최성림 목사의 휴양주일입니다.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
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처음 오신 분 / 김두한 성도(아름다운교회),
김정욱 정동경 성도(순복음금정교회)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0월	10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이경준	김낙형
안 내	김유니	최예지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종)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담임목사 / 최성림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강도사 / 양주동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9.29.(제28-39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애 3:22-23(교송)
	인도자: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회 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찬송7장(3-4)
	죄의고백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주계명/교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8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시편24편(1-2)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마 16:1-12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6편(1-3)
	설 교 ↓	설교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5장(4a-b)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27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사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23:1-2(교송)	
인도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회 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달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			
* 축복의인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시편50편(3)	
신앙고백			
* 신앙고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사찬송 ↑	찬송24장(2a-2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욥23:7-14, 롬8:28	
교리문답교독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9-8편	
설교 ↓	설교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유익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 구제헌금 분병 분잔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7장	
폐회			
* 강복선언 ↓	주기도문	

주일설교를 기억하며(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 1.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늘 묵상함으로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기를
- 2.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거짓되고 헛된 강설을 분별하고 내쫓을 수 있도록
- 3.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직분자들과 봉사를 위하여

- 1. 직분자들의 섬김이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 온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 2. 성도의 연합함과 죄로 인하여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직분자들이 성실히 감찰할 수 있기를
- 3.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에 봉사하고, 활력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정의실현을 위하여

- 1. 파괴된 성문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바로 잡히며, 성도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주도하도록
- 2.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생하는 전쟁, 빈곤, 자연파괴 등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 3. 세상과 똑같은 기준에서의 영향력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위하여

- 1. 김해개혁장로교회와의 연합모임이 잘 이루어져 온전한 교회일치와 연합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 2. 부산중부노회와 동래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가게
- 3.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꾀방하는 가시와 엉겅퀴같은 악인들의 궂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예배순서에 대하여 - 문안인사

고신총회 [헌법해설:예배지침]에서 발췌 및 정리

교회의 예배순서 중에서 때때로 의미를 잘 모르고 따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축복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축복의 인사는 다른 표현으로 “문안인사”라고도 합니다. 과연 이 문안인사는 무엇일까요?

문안인사는 ‘예배부름’에서 표현된 예배자의 고백과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전 1:3).” 혹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계 1:4-5)”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 문안인사(기원)는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복입니다. 예배자가 ‘예배부름’을 통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문안인사로 반응해 주십니다. 이 문안인사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개회순서에서부터 모든 예배순서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안인사를 “축복의 인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다함께 인사를 하다보니 이 인사가 ‘성도 간의 교제의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성도 모두가 함께 선포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를 성도가 함께 선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도자가 대표로 인사할 때도 있습니다.

성을 다루셨던 방식이며(신8:2)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를 가지고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여기서 '단련하다'는 말은 '어떤 물질의 본래의 성질을 드러내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욕의 신앙의 순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나 위로보다 두려움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련하시키기 위하여, 더욱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면 이는 큰 위로입니다.(고전10:13)

우리의 연약함은 자주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불시험과 연단의 고통을 벗어나려 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손해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요18:11) 우리가 마시는 잔이 아무리 쓰고 힘들다 해도 실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대신 취하신 그 잔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모든 지혜에 뛰어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하며 욕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청종할 때'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3. 자기 백성을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이 이렇게 확신있게 답하는 것은 그를 단련하시는 분이 그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빌1:6) 시험과 고난을 인하여 탄식할 때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지만 종국 그 백성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의 과정은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험의 결과는 값지고 귀한 순금갈을 것입니다.(롬8:28)

이 믿음의 시련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감당할 때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벧전 1:6,7,시116:15) 곧 구속주께서 이 시련에 합당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7)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골1:24).

아직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단련하실 때,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우리가 순금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동래연합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9월29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516장
성경봉독	마 16:1-12
설 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이

주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거짓을 이깁니다.”

1. 시험하러 오는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악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3장부터 강력한 악당으로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마 3:7, 12:34, 23:33).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것과 똑같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마귀의 자식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보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헛된 요구에 대해 진리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마 12:39).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흘 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마 12:4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독사의 자식답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복음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의 계시입니다. 하늘의 변화를 통해 일기를 예측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계시를 아는 일입니다. 곧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을 알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질서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아는 지식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방식의 계시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되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한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반적인 계시를 경험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의 변화를 통해 일기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 하늘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

는 마귀의 편에 서있었습니다.

2.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면서 떡을 챙기지 않아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6절)”고 하십니다. 한 참 떡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제자들은 떡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 떡의 문제는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마귀는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와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면 그들은 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귀의 교훈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나무라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떡에 한 눈을 팔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에 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참된 말씀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그들의 가르침만을 지속해서 듣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종교지도자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이고 교회를 위하는 일처럼 보이나, 실상 그 내용은 세상과 마귀가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교훈에 관심을 더 가지다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진단합니다. 많은 진단들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호 4:6).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많지만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믿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설교라는 가면을 쓰고 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가득 담긴 빵을 먹게 됩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인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거짓된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짓과 헛된 교훈이 사라지고,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만을 먹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9월29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336장
성경봉독	욥23:7-14, 롬8:28
설 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유익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의 길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입증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이 실상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 “자기 백성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옴은 자신의 결백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옴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는 그 사실 한가지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뵈려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사실이기에 그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것이 바로 야웨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34:21, 잠 15:3)

진실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귀한 진리요 위로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옴이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옴 역시도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따랐고, 주의 말씀을 깊이 사모했지만 극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옴은 전지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이 은혜로운 사실을 기억하시며 위로를 얻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당하는 고난이 주의 작정하신 일이기에 자신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13) ‘내 발이 주를 따랐음에도, 내 입술이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정하신 일이기에 나는 다만 이 일의 원인을 주님에게서 찾고자 한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이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요14:8)

2.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는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기 위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